

即身成佛의 大道 - 密敎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 총지종보

七情에 흐려져 망설이지 말고  
自性を 닦으면서 현실에 헤매이지  
말고 오직 眞理를 깨칠지니라

- 종조법설집 -

## 창간호

등록번호 마-2360호  
등록일자 1995. 8. 29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76-2  
(우) 135-082

발행인 안중호  
편집인 이증석  
인쇄인 김규석

대표전화 (02)552-1080  
발행인실 (02)562-8823  
편집국 (02)508-8933  
광고신청 (02)552-1081  
구독신청 (02)552-1083  
팩스 (02)552-1082

### 주요기사

- 1면 • 총지종보창간  
• 종령법어
- 2면 • 불교계 인사 창간축사  
• 사실  
• 행사및 법회안내
- 3면 • 종조약전  
• 창간사  
• 밀교-대승불교의 진면목
- 4면 • 특별좌담회  
"총지종의 미래와 발전방향"  
-참된 발전은 참된 수행에서  
-불교교육은 포교에 연결  
-화술연구지원과 장학제도의 확대  
-사상적 교리적 특성 부각으로 타종단과 차별화
- 6면 • 종단발전의 견인차: 총지종 법장원  
• 다시 생각하는 불교
- 7면 • 교내인사 창간축사  
• 총지종보 이렇게 꾸며진다.
- 8면 • 종단 주요행사  
-여름학생 수련대회  
-어린이불자 수련대회  
-부산정각사본당 신축공사  
• 만다라의 세계

## 「총지종보」 10월 16일 창간

### 맑고 밝은 법음 전하는 진리의 메아리 지혜에 눈뜨고 자비에 가슴 열리게

종단의 숙원이었던 「총지종보」가 관심과 기대속에 드디어 창간호를 내게 되었다. 10월 16일 오늘로서 힘찬 발걸음을 내어딛게 되는 총지종보는 앞으로 즉신성불(即身成佛)의 숭고한 이념을 널리 알리고 밀교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땅에 불국토를 건설하겠다는 일념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사시로 하여 부처님 법을 모시고 실천하도록 이 끌어 모든 독자들이 지혜에 눈뜨고 자비에 가슴이 열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동안 종단내외의 비정기적인 간행물들이 있었지만 시대에 더욱 적극적인 교화를 위하여 이번에 정식 신문의 형태로 발간하는 것이다. 이 종보발행은 창종당시부터 계획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간 내적으로는 전당건설 및 포교사업, 외적으로는 불교방송 불교텔레비전 설립의 참여등으로 인하여 발간이 늦어졌다. 종보에는 종단내외의 소식은 물론 불교계의 주요한 소식들이 실리며 또한 경전 말씀과 대덕들의 법어, 수행수기, 교양강좌등 이밖에도 불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실리게 될 것이다.

1면은 종단내외의 주요행사및 종령법어가 게재되며 2면은 사실과 종단관련, 불교계 주요행사를 다룬 계획이다. 3면은 설립년으로 본종의 스승들의 교화경험담 및 교도들의 신행담이 실려진다. 4면과 5면은 불교교리강좌나으로 불교의 기본정신에 대한 강좌와 밀교의 기초및 심도있는 논문이 게재된다. 6면에는 경전상식과 경전말씀들을 풀이하는 난이 실리며 생활의 지혜와 불자로서 꼭 알아야할 일반상식들을 다룬다. 7면은 불자참여란으로 신정회의 활동 및 불자담방등의 난이 마련된다. 8면은 화보란으로 밀교의 세계를 소개하며 사진으로 보는 불교문화, 주요 행사내용 등이 실린다. 한글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하되 종보의 특성상 한자도 병행하여 누구



자비의 연꽃위에 빛나는 지혜의 보주여! 올마니반메홀 (동육스님 연꽃 사진집 "꽃을 드니 미소짓다"중에서)

나 읽기 쉽도록 배려하겠으며 더 나아가서 읽기만 하는 신문이 아니라 보고 느끼는 신문이 되도록 시각적 논문을 게재한다. 6면에는 경전상식과 경전말씀들을 풀이하는 난이 실리며 생활의 지혜와 불자로서 꼭 알아야할 일반상식들을 다룬다. 7면은 불자참여란으로 신정회의 활동 및 불자담방등의 난이 마련된다. 8면은 화보란으로 밀교의 세계를 소개하며 사진으로 보는 불교문화, 주요 행사내용 등이 실린다. 한글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하되 종보의 특성상 한자도 병행하여 누구

### 종보창간 기념 대법회 추계 강공회 개최식과 겸하여

「총지종보」 창간 기념대법회가 10월 24일 오후 3시 총지사 본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기념대법회는 46회 추계 강공회 개최식을 겸하여 열리는데 전국 스승및 교도 대표, 본 종단과 관계있는 불교계의 주요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법회가 끝난 뒤 3층 대강당에서 리셉션이 개최된다. 특히 이 자리에는 창간을 축하하기 위하

### 종령법어



바르고  
아름답고  
맑은 소리를  
전하는 진리의 場

宗領 祿靜

법신불이 설하시는 비밀하고 오묘한 세계를 하찮은 인간의 언어로 어찌 감히 읊조리겠는가마는 어리석은 우리 중생들은 그나마 그 하찮은 말마디에 의지하여 진리를 더듬어 나가니 말이란 없어서는 또 아니되는 것이다. 이제 「총지종보」가 발간되어 법을 전하고 아름다운 메아리를 전하겠다는 기쁨이로써 걱정이 앞서도다. 세상의 저 거짓으로 가득찬 먹물의 잔치에 물이라도 들면 어찌할까. 부디 우리 「총지종보」는 바르고 아름답고 맑은 소리만 전할지이다. 그리하여 갈애에 허덕이는 중생에게는 시원한 감로가 되고 미망에 헤매이는 중생에게는 빛이 되거라.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종소리가 되고 웃음을 꽃피우는 연화가 되거라.

### 종조 멸도절 추선불사 봉행

#### “원정종조의 창종의지 오늘에 되살려야”

15주기 종조멸도절 추선불사가 9 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다 월8일 경인 지구 스승 및 교도들이 만 변할 수 있는 것은 시대의 변화 모인 가운데 총지사 본당 3층 대강에 따른 교화 방편이므로 시대의 호 당에서 봉행되었다. 이번 불사에서 름을 통찰한 원정종조님의 창종의지 효강 통리원장은 추도사를 통해 시 를 오늘에 되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 대는 변해도 불공정전의 공덕은 영 명이며 또한 법계의 사명이라고 했 원하며 이러한 혼탁한 물질시대일수 다. (관련기사 3면)



추선사를 낭독하고 있는 록정 종령

한국 불교문화의 새시대를 선도하는 - 불교텔레비전

# 祝 創刊

총지종보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역사포교의 ○○○○”



## 새시대 서어. 불교 텔레비전” ○○○○

2천8백만 불자들의 원력으로 세워진 불교텔레비전이 영상포교의 새시대를 선언합니다.

btn 불교텔레비전  
깨달음의 길잡이로써  
무명과 편견과 갈등을 극복하고  
모든 고뇌와 번민의 근원에서 벗어나  
밝은 내일을 창조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며,  
온누리가 부처님의 땅이 되도록  
나와 이웃, 나와 사회  
그리고 나와 부처님이 하나라는 사실을 깨우치는  
일치문화의 꽃을 피워나갈 것입니다.

btn  
불교텔레비전 32

본 사 : 서울·마포구 마포동 418번지(금호전기빌딩)  
전화 : (02)3270-3300 팩스 : 3270-3498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동구 법일2동 830-260(동양빌딩)  
전화 : (051)645-5114 팩스 : 631-1772

사설

지혜와 자비의 정신에 입각 보살도 실천의 매체가 되도록

그동안 우리의 숙원이었던 『총지중보』가 오늘로서 창간되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표방하고 불법을 언제나 우리곁에 가까이 두려고 애써왔던 우리 종단으로서...

세상의 저 수많은 언어의 장(場)에서 진실하고 올바른 말이 과연 그 몇이나 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기쁨을 주는 말이 그 몇이나 될 것인가? 저 거저되고 편견과...

총지중보는 당분간 월 일회 8면으로 발행된다.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유능한 인재를 더 충원되고 장비가 갖추어짐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발간 횟수와 증면이 이루어 질 수 있으리라 믿는다. 시대에 부응하여 한글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하되 불교특유의 일부용어에 있어서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총지중보』가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화합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몇몇 사람의 힘만으로 중보가 만들어 질 수는 없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때에 우리 『총지중보』는 더욱 충실해지고 풍부해지며 어디에 내어놓아도 손색없는 우리 총지중의 얼굴이 될 것이며 이 혼탁한 사회를 정화하는 길잡이가 되고 본보기가 될 것이다.

(사령)

보도부 기지에 명함. 김재훈(소속: 통리원) 윤승호(소속: 통리원) 편집부 기지에 명함. 박현수(소속: 통리원) 엄영주(소속: 통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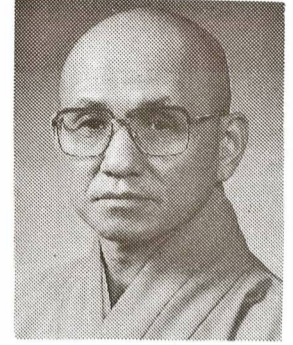
명예 기지에 명함. 김병구(소속: 자석사) 김혜경(소속: 수인사) 박기산(소속: 관음사) 이만혁(소속: 단음사) 이상수(소속: 만보사) 장낙돈(소속: 정각사) (총기 24년 10월 2일자)

총지중보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불교계 대표인사 창간축사

불교의 미래를 열고

정통밀교의 맥을 이어가기를



흔탁한 사회에 청량한 법음을 전할 총지중보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그동안 총지중은 잡자고 있던 이 땅의 밀교의 맥을 오늘에 되살리고 정통밀교 종단으로서 타종단의 모범이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승단과 교도의 화합단결로 교세의 급속한 성장을 보여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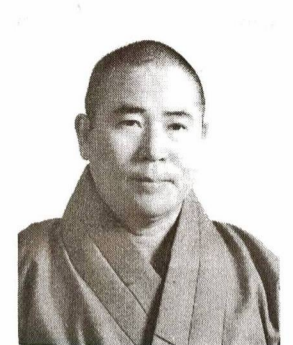
찌기 불교방송과 불교텔레비전의 설립에 참여하여 불법의 흥포에 앞장서 왔을 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불교진흥을 위하여 노력해 왔는데 이번에 다시 활자매체를 통한 불법의 흥포에 나서게 되니 참으로 기뻐할 일입니다.

수많은 언어가 난무하고 정의가 사라져 가는 이 말법시대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한 정견과 정어로 증생을 교화하고 바른길로 이끌 수 있는 참된 언론이 되기를 바라며 불교의 미래를 열고 정통밀교의 맥을 이어갈 훌륭한 중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송월주

무명을 밝히는 지혜의 햇불!

즉신성불의 원리 전파하기를



우선 총지중보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그동안 밀교종단으로서 착실한 성장을 통하여 불교방송및 불교텔레비전의 설립에 참여하여 불법흥보에 노력해 온데 이어 다시 총지중보를 창간하여 지상 설법을 펼치게 되니 기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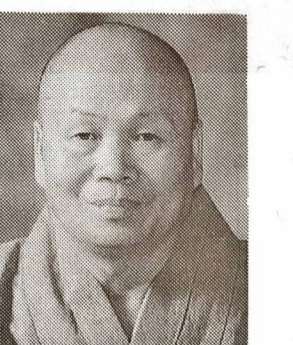
불입니다. 물질위주의 급변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가치관은 전도되고 이승 외도가 판을 치는 이때에 총지중보는 날로 심각해지는 인간의 삼독성을 걸러내고 또 즉신성불의 원리를 전파하는 매개자로서 그 직분을 다하리라 봅니다.

또한 사회를 바로 보고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길잡이가 되고 생활불교, 실천불교로서의 종단의 모든 메시지들이 중보를 통하여 전달되고 중도들은 이를 통하여 날로 신앙이 영글게 될 것입니다.

불기 2539년 9월 불교방송 이사장 박종하

불교홍포의 견인차가 되고

깨어있는 목탁이 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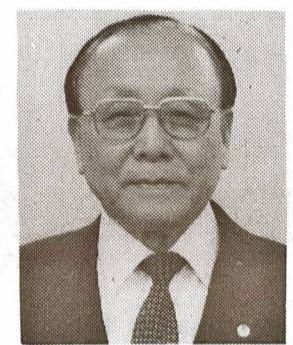


부처님께서는 '삼천대천세계를 장엄히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이웃에게 진리의 말씀을 한마디 전하는 공덕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총지중보』의 창간은 단순히 또 하나의 활자매체가 늘어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웃들에게 널리 전해지는 새로운 공기(公器)가 탄생하였다는 점에서 기대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불교계도 첨단영상매체인 불교 TV가 사방세계에 방송됨으로써, 교계가 지향하고 있는 불교의 현대화와 대중화가 더욱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총지중보 불교TV와 『총지중보』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더욱 요청된다고 하셨습니다. 『총지중보』가 앞으로 앞장 매체로 발전해 불교홍포의 견인차가 되고, 깨어있는 목탁의 사명을 충실히 다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기 2539년 9월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태용

불교중흥의 초석 다지고 신행의 길잡이가 되기를



『총지중보』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언론매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요즘 『총지중보』의 창간은 종단뿐 아니라 모든 불자들에게도 매우 뜻깊고 반가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21세기를 향해서는 우리 한국불교는 지난 날의 안일과 소극적인 자세로부터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어야 하며 다만 그것이 후회로 그칠 것이 아니라 마침내 행중에까지 이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총지중보』는 불교중흥의 종지의 선양은 물론 교계 내외에 소식을 널리 알리고 모든 불자들의 신행을 계도하여 한국불교 중흥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지중보』의 창간이 있거지 모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께 불자의 한사람으로써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를 드리며 무궁한 발전과 번영이 있기를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1995.9. (재)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서문각

밀교를 알리는 포교지로서 종단유대의 교지 되기를



하느님 불교인으로써 축하하고 환영하는 바이다. 총지중보는 벌써 창간되어야 할 문제인데 그동안에는 신문이 아닌 소식지로 대체해오다가 이제부터 명실공히 편의를 위한 신문으로 출범함은 전불교계의 경사가 아닐 수 없다. 이 신문이 창간되어 총지중의 밀교를 신봉하는 모든 신자들이 교리를 명철하게 알아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종단과의 유대에도 큰 몫을 하는 대변자가 되고 나아가 밀교를 모르는 불교신자나 사회인들에게도 밀교를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임을 확신하고 귀 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불기 2539년 9월 중앙승가대학 학장 임승산

행사 및 법회안내

- 중보창간 기념법회: 10월24일
• 46회 추계강공회: 10월24일~25일
• 복지화지수 열반3주기: 10월29일
• 11월 월초불공: 11월6일~12일
• 교양대학개원: 11월15일
• 12월 월초불공: 12월4일~10일
• 장교절: 12월24일



Table with columns for various Buddhist organizations and their members. Includes titles like '회장', '부회장', '총무원장' and names like '송월주', '박서운', '전석모'.











### 만다라(曼荼羅;Mandala)

만다라는 밀교에서 도형으로 나타낸 불(佛)의 세계로서 깨달음의 본질을 상징화한 것이다. 사진은 태장계(胎藏界)만다라로서 밀교의 교주인 법신아불(法身佛)비로자나부처님을 중심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불보살과 신들이 둘러싸고 있는 대생명의 조화된 세계를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세계속에는 불보살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모든 유정 비정들 까지도 포함한 대조화의 신비세계가 상징되어 있다.



<태장계 만다라>

### 제2회 경로수련법회(8.16-18)

과산 수련원에서 60세 이상의 불자들을 대상으로 경로 법회를 가졌다. 정각사 합창단의 음성공양과 함께 국태민안, 조국평화통일을 위한 기원 법회가 있었으며 국악과 어우러진 장기자랑 및 충주호 관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노불자들의 쌓인 회포를 말끔히 풀어드렸다. 어느 보살님 왈 "이런 법회 일년에 서너번쯤 할 수 없을까? 손주 보라 며느리 반들라 설 틈이 없다우"



크라이바로 고돌도... 다 털어 버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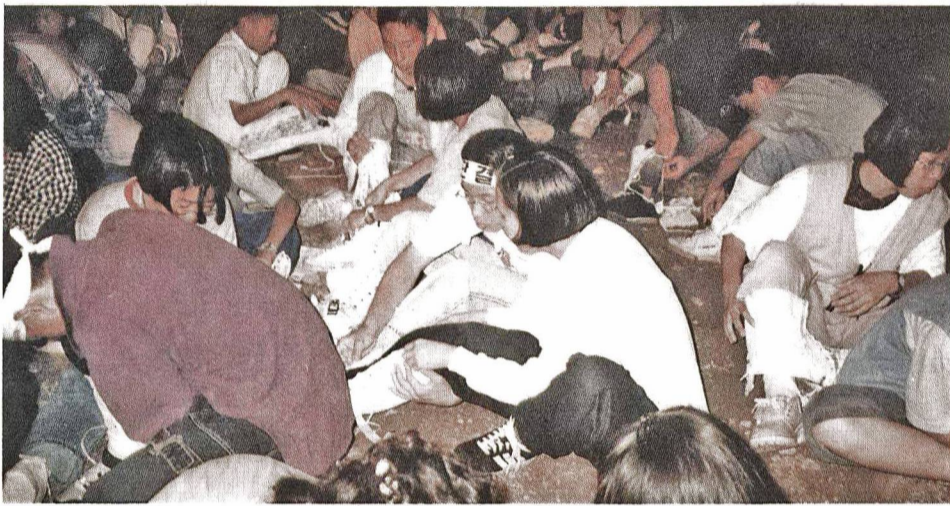
무명천자에 의지할 곳... 바로 우리 자식들

# 총기 24년 하계 주요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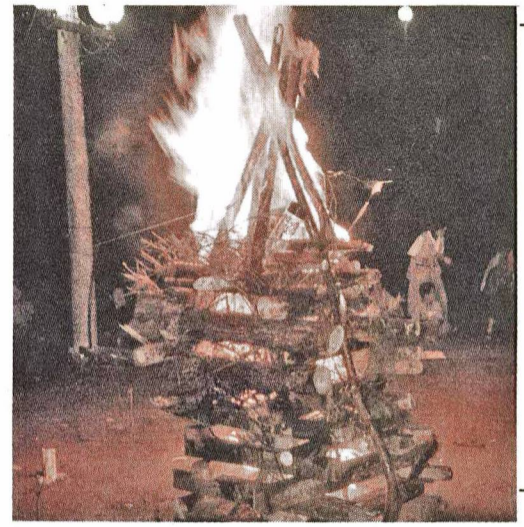
## 여름학생 수련대회(724-27)

충북 괴산군 청천면 총지중 수련원에서 전국 청소년학생회 회원 2백여 명이 「보살도를 실천하자」는 주제로 제5회 학생 수련법회 개최, 총지인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 긍정적 사고(思考)로의 전환, 화합 단결의 정신 함양등을 목표로 일반 청소년 수련회와는 다른 차원에서 실시, 예를 들면 크기 운동의 일환인 산악 행군의 경우 각 조별로 몇명씩 장애인인

역할을 함으로서 그들의 고통을 체험하고 또 그들을 부축해 산행을 마친 으로서 동체대비의 보살심을 내게 한다든가 주인 모를 무덤을 부모님의 무덤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불효했던 일들을 편지로 쓰게 한 후 수련회의 기억이 희미해 질 때 다시 학생들에게 보내 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들이 그런 것이다.



◇ 서로 도우며 보살도를 실천한다-아간 산악행군 중.



◇ 좌: 부처님의 고뇌도 이러 했을까(불교교리 강좌시간).

◇ 우: 아름답게 타오르던 그 젊은 날들이여!(3박4일의 마지막 밤 캠프화이어 시간).

## 부산정각사 본당신축기공식(84)

부산 정각사(주교 정정심 전수)본당 신축 기공식이 봉행되었다. 이번에 신축되는 본당 건물은 대지 8백33평 연건평 6백60평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립될 예정. 경남 부산 교구장 의감 정씨는 기념사를 통해 "정각사가 이 불사를 계기로 더욱 융성정진하는 대기도량으로 발전하기를 서원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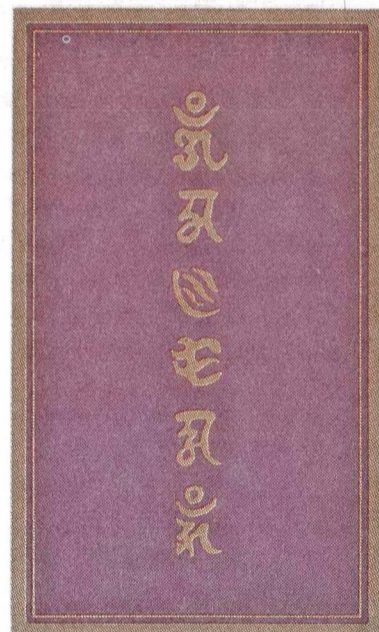
## 어린이불자 수련법회(8.1-2)

제2회 어린이 불자 수련 법회가 온양 총무 수련원에서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박2일 동안 열렸다. 법회, 장기자랑, 체력단련, 음성공양, 촛불의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이외에도 "우리의 하나"라는 주제로 불꽃놀이가 있었다. 헤어지기 싫어 눈물을 글썽이는 어린 불자들을 위로하고 내년에 또 만날 것을 기약했다.



◇ 아이! 무서워... 체력단련 시간의 한장면

## 다라니제작 배포



새로 제작한 호신 다라니를 배포중임. 이 다라니는 관세음보살 본심미묘진언(本心微妙眞言)인 음마니반해음을 금박으로 인쇄한 것으로서 수첩이나 지갑등에 넣어 휴대하기 좋도록 만들었다. 대승장엄보왕경(大乘莊嚴寶王經 卷四) 및 칠구지불모준제대명다라니경(七俱胝佛母準提大明陀羅尼經) 등에 이르기를 이 진언은 진언 중의 으뜸으로서 외우거나 몸에 지니면 무진번재(無盡辨才)와 청정지혜(淸淨智慧)를 얻게 되고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며 무량한 불보살과 호법성신(護法聖神)들이 응호하여 모든 재앙을 소멸하고 악마사신(惡魔邪神)들을 항복받는다고 했다. 필요하신 분은 총지중 통리원이나 각 사원으로 연락하시기 바람. ☎02-552-1080



#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불교방송은 부처님의 법음을 전파함으로써  
자비, 평등, 해탈을 바탕으로한  
인간 존엄성의 구현과 사회의 정토화를 추구합니다.  
불교의 현대화, 생활화, 대중화에  
정성을 다하고 있는 불교방송은  
정법구현을 통한 불국정토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불교방송에 귀 기울이면  
자비의 법음이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일궈갈 것입니다.

■ 불교방송 전국방송망 확장에 불자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동참을 바랍니다.

불교부산방송과 불교광주방송의 개국에 이어 대구와 청주에서도 불교방송이 곧 개국합니다. 불교대구방송과 불교청주방송이 전국 불자들의 성원하에 여법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동참을 기원합니다.